



2003년
4월 15일
제 56호

춘천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복음·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임신영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1동 373-90 (☎200-091)

Holy Club 초청

닛시선교찬양단 연주회

춘천 홀리클럽(회장 조은제 목사)은 닛시선교찬양단을 초청하여 4월 3일 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춘천선교회를 위한 가곡과 찬양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찬양연주회는 CBS춘천기독교방송과 춘천선교회동맹부가 후원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의 후원을 받아 춘천홀리클럽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적인 찬양단 초청 연주회는 참으로 오랜만이었으나 참여도는 낮은편이었으며 소외감도 높았으며 춘천홀리클럽 단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5백여

교회찬양수준향상 가곡과 찬양 통해 시민전도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연주회는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텅빈 듯한 느낌이었으나 가곡과 찬양이 흘러 퍼지면서 뜨겁게 달아 올랐으며 춘천홀리클럽 총무인 신종철 단장이 이끄는 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공연은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각 파트별 솔로와 듀엣, 4중창의 찬송가, 성가곡, 복음성가곡의 연주로 관객 모두가 깊은 감명을 느꼈으며 마무리 부분에서 닛시선교찬양단 강대연 단장의 계획에 없었던 즉석 간증으로 은혜의 찬양집회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관객이 다 함께 손뼉치고 목청껏 찬송을 불렀으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강원노인복지회 사랑의 식탁 오픈

- 무의탁노인 위한 무료식당, 사무실 이전예배 -



허 천 이사장



임회방 이사

강원노인복지회(이사장 허천 장로)는 춘천경찰서 옆 신림장로교회 빌딩 지하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4월 2일 오전 11시 지도목사와 이사진, 내빈과 봉사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사무실 이전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무료식당을 오픈했다.

이날 예배는 허천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 되었으며 김주환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대표기도에 이어 김광국 지도목사(성광장로교회)의 메시지가 있었고 김창수 지도목사(신성장로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김광국 목사는 설교말씀에서 물과 떡을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며 강원노인복지회의 사랑의 식탁이 광야의 식탁처럼 기적의 식탁, 은혜의 식탁, 일용할 식탁, 영과 육을 먹이는 식탁으로 풍성한 성만찬이 되기를 축원했다.

경과보고에서 전록주인 동부장로교회 임회방 장로는 사랑의 식당을 열기까지의 신앙간증으로 감동을 주었다. 임장로는 처음 건물을 지으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것을 다짐했다. 초심 그대로 3층은 교회로, 지하는 노인복지회 사무실과 무료식당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층의 월세 1백만원은 사랑의 무료식당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식당은 매주 수요일 운영할 예정이지만 임장로의 포부는 앞으로 가능한 매일 사랑의 식탁을 운영해 무의탁 노인들을 대접할 계획이며 장소가 협소할 경우, 수용능력이 가능한 곳으로 확장해서라도 불의한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와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노인복지회: ☎243-3330 FAX 244-4330/E-mail: knobok@hanmail.net 춘천시 효자동 682-8번지



제3회 부활절 십자가 시가행진 개최

- 시가행진, 십자가상에 못박힘, 죽음과 부활 제언 -

춘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임신영 목사)는 4월 20일(주일) 오후 3시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제3회 십자가 시가행진을 가졌다. 오후 3시 도심에 위치한 동부장로교회 본당에서 출발예배를 드리고 나무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도보로 중앙로 로타리를 경유, 공저천 수변공원까지 시가행진 퍼레이드를 통해 모든 시민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연하는 교계대표와 그들과로 마방사와 여인들의 모습으로 분장한 청년들과 수천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뒤를 따르며 구경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하여 행사의 이해를 돕고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며 석사장로교회 여성선도들이 수천

개의 삶은 달걀을 부활선물로 나누어 주고, 강원농협지역본부와 수변공원 등지에서 도보로 인한 갈증해소를 위해 음료수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아름다운 합창을 들려주게 된다. 그리고 강원경찰청과 대연주가 뒤따르며 방충차량의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그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킬 계획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언은 교계의 대표적인 목사와 장로, 직장신교회 대표, 천천히 시장, 경찰서장 등 40여명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을 재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크리스찬을 비롯한 동참한 이들 모두는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 좀더 변화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순복음춘천교회 헌당 감사예배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춘천교회(당회장 김주환목사)는 오는 4월 22일(화) 오전 11시 본 성전에서 세계하나님의성회 직전회장이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초청, 헌당감사예배 및 조남진, 최종인 원로장로 추대와 담임목사 근속 30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1972년 4월 춘천시 효자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동안 크게 부흥시켜 왔으며 만천하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이전하여 본당과 교육관, 노인복지회 위한 사랑의 집을 완공하였다. 400여명 수용 규모와 사랑의 집은 4월 23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매일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봉사해 나갈 계획이다. 예배는 당회장 김주환 목사의 집례로 시작해 교단 부

총회장 김종남 목사 기도, 제일순복음교회 하기철 목사의 성경봉독, 조용기 목사의 설교말씀에 이어 봉헌감사헌금을 위해 교단총무 박성배 목사가 기도하며 건축위원장 임윤선 장로가 성전본당, 교육관, 사랑의 집 건축경과보고 및 봉헌 위임하고 김주환 목사의 말씀과 봉헌선언, 삼강선실 영인문 사당에게 공로패를 전달한다. 이어 본 교회 성도들은 담임목사 근속 30년과 조남진, 최종인장로의 원로장로 추대를 기리는 의미에서 축하패를 증정하고 교단총회장 박영찬 목사, 강원기독교연합회 직전회장 김창수 목사, 류중수 춘천시장이 격려하고 축사하고 춘천중앙성경교회 윤철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칠 예정이다.

제62회 감리회 동부연회 성황리에 마쳐

- 지방 감리사 22명 선출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62회 동부연회가 지난 4월 9~10일, 2일간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동부연회 권오서감독(춘천중앙교회 시무)의 사회로 각부의 업무보고와 본과 위원회의 토의에 이어 감리교 300만 총력전도운동 추진에 협력할 것을 결의한 후 47명의 새로운 목사를 안수하였다. 금년도 연회는 동부연회 590교회에서 1257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근속 30년의 목사 표창과 4명의 은퇴목사 찬하식을 행하였고 22개지방별로 임기 2년의 감리사와 실행위원을 선출하였다.

《지방 감리사》
송성윤(강릉) 이찬규(동해삼계) 김한구(속초남) 김남철(속초북) 조행국(영월) 신정훈(영월서) 박기중(원주동) 이종서(원주서) 김종균(원주남) 한민웅(인제) 최명섭(정선) 엄영삼(철원동) 김진산(철원서) 박용호(춘천동) 백낙영(춘천서) 박인관(춘천남) 최현영(춘천북) 이두성(태백) 정경석(평강) 서치호(홍천동) 권오현(홍천서) 권용주(횡성)
《연회실행위원》
김기태, 심인식, 한주석, 박동태, 박영식, 조복길, 이재중, 탁주화, 김형재, 김순재, 김준호, 고광빈, 이호상, 김진만, 이장관, 김영호, 임철재, 한종섭, 김시한, 박지영, 고병렬, 신현정.

춘천 성시신문을 활용하십시오

교회와 선교회, 기독교관련 모임 또는 개인의 개회예정인 행사, 행사결과(사진), 설교문, 수필, 간증, 소속단체 소개, 성시 등을 성시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분은 매월 11일까지 A4용지 1매 내오(분량이 많은 경우 연재됩니다)의 원고를 다음 방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 팩스: 257-1260(24시간)
- ☎ E-mail: holycc@holycc.org / holycc@hosanna.net
- ☎ 우편: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번지 춘천성시신문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 화 교 회

축 창립 25주년 기념
한군 담임목사 근속 25주년 기념

◎ 부활절 예배 및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

일시: 2003년 4월 20일(주일)

1부예배 07:30 / 2부예배 09:30 / 3부예배 11:30

장소: 평화감리교회 본당

주소: 강원도 춘천시 우평동 시내버스 종점 앞 평화감리교회
대표전화: 1588-9140(구원선) /
전화: 033-241-5621 팩스: 033-241-5622
홈페이지: http://www.shalomph.com E-mail: shalomph@chollian.net

2003년 표어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 공동체

2003년 기도 제목

예배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기도중에 응답하심을 받게 하소서
말씀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전도중에 잃은 영혼을 찾게 하소서



담임목사 한 군

- ◎ 선교목사: 김상엽
- ◎ 시무장로: 김동열, 김현배, 김종식, 신 현, 오문식, 민경옥

시인의 마음

인성(人性)이 병든 지식(知識)



장국광 수필가
(전, 강원도의회 전문위원)

인생에 있어서의 정신 못지 않게 물질도 중요한 것 같다. 어쩌면 더 중요하기도 모른다. 물질은 건강을 지키고 건강은 또 정신을 지키니 건강을 잃으면 인생자세를 잃기 때문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얘기도 이를 두고 한 말일까?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정신이다. 물질의 효용성은 정신만이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질은 필히 건전한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신 없는 인간을 상상해 보자. 이때 건강한 육체는 총각만 될 뿐이다. 정신의 세상은 물론 남의 세상도 다 망칠 수가 있다. 인간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성품을 우선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성이 없으면, 그대도 우리의 배를 불러줄 대신 인성을 황폐화 시킨다. 그간 인성이 중심이 되어온 우리의 전통사상이 어느덧 물질만능주의에 밀려나 총이나 효는 물론 외리나 우정, 그리고 사랑 같은 정신적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에 물든 고착한 이기주의가 오히려 인성의 중요성을 대변하게 되면서 기능보다는 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만 반듯하면 기능은 마음먹는 대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물질에 익숙해진 탓인가 아니면 과도기적 현상인가? 교육

은 고사하고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불결 폭인 것 같다. 이런 이중적인 분위기에 속에서 지금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다. 얼마 전 과반문제가 논의될 때 국익이란 말이 자주 많이 오갔다. 국익이 외교의 범인인 양 절대가치가 되고 있었다. 우왕이나 외리 같은 것은 국익 다음 개념이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개인간의 인간관계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의 국익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이기주의가 된다. 인간관계에 이기주의가 끼이면 오래 갈 수가 없다. 인간과 사귀는 게 아니라 기계나 동물과 사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병들어 가는 인성이다. 건강한 인성은 '좋아도 해서는 안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고, '죽어도 해야 할 일'은 의연하게 하라'고 가르친다. 순익(順益)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道理)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열사가 하나뿐인 생명을 초개같이 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닐까? 참으로 미담도 돈든다. 이렇게 병들어 가는 인성이다. 이 나라도 국가가 담게 대접받지 않을까? 비록 힘은 없지만 강직하고 독목하다는 소릴 듣는지만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외교의 근본이다. 무엇이 국익인가? 그런데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소한 명수와 같지도, 언제 덮일지도 모릅니다. 뭘 좀 주어서 달래주세요 미국도 적당히 달래고, 야만 쪽도 적당히 바쁘게 양면작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말을 자랑하듯 말하는 어느 정치인의 말이 이렇게 가볍고 대박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쪽을 선택했던 무것도 없고 단호함도 없었다. 강직하지도 못했고 독목하지도 못했다. 인성이 병든 지식의 폐해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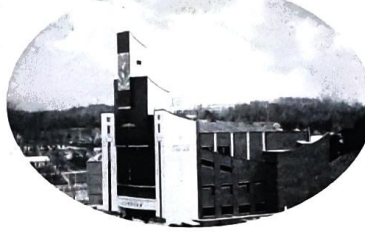
석사감리교회 봉헌예배 및 원로장로 추대
- 교회당 봉헌, 원로장로 추대 3인, 취임장로 5인 -



임택창 목사

드렸으며 원로장로를 추대하고 취임장로를 세웠다.

교회설립 제80주년을 맞는 행사로 새 계승 비전 하나를의 은혜에 감사하는 건 교인의 귀한 축일이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었지만 더욱이 40년 이상을 장로로 봉직하신 분들의 원로장



이명영 장로

황용하 장로

황정섭 장로



문병용 장로



백기린 장로



김기광 장로



서대식 장로



공정광 장로

로 추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뜻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다.

전 교인이 신행을 기울여 준비한 이날 예배에는 전국 각처에서 많은 목회

자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원로 및 추대장로들을 축하했으며 교회에서 준비한 만찬과 선물을 나누며 친교했다.

제3회 부활절 십자가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기독교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대속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의 첫 열매가 되실까? 부활의 구세주가 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탄에게 일제 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신앙의 토대 위에 기독교인으로 중생시키기를 기도합니다.

- ★주제: "예수님은 부활 하셨습니다" 유일시: 2003년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
- ★주최: 춘천 기독교연합회 주관·춘천 성서포럼동맹부
- ★참석: 춘천동무교회교회 예배당→종일토→삼천동 시민공원

춘천의 기독교아카데미 베드로선교센터

- 유치원, 청소년 훈련, 목회자 인재양성, 성경적세계관 교육 -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베드로의와 병원(베드로선교센터) 원장 조은계목사는 2002년 4.5을 중추, 주파장을 확장하고 유치원(선교회), 중추(중추), 청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선교연구원을개설하여 목회자, 선교사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 선교원은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들의 보충교육을 위해 현지강의와 실습으로 현장강의는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방학기간 동안 교육반기 위해 선교원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의 가족을 위해 동식간과 자녀교육을 지원하므로 그 동안 일약한 환경으로 공부할 기회가 부족했던 선교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조은계 목사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기드문 지도자로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병원빌딩을 중추하

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4층과 5층의 강의실은 교육훈련에 임하는 남녀노소 가독자 뜨거워 믿음의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사랑운동을 주도하는 청소년들은 학원선교와 노년선교, 일본선교를 포함한 해외선교에 열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학인을 통한 목회자 양성과 미션 퍼스펙티브의 성경적 세계관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적극 참여해 교회개인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사도 붙지 않는 성공적인 기독교아카데미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앞장서고 협력하는 여러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있어 아카데미인 교육훈련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하겠다.

세계선교연구원 TEL.253-1140 / FAX.253-9552 / 춘천시 효자동 2동 312-1번지 / E-mail: sancps@hotmail.com / bedrohp@chol.net

레크리에이션

컴퓨터 중독증에 대한 논란



정진완 장로
(한국가톨릭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 명예회장)

청소년과 컴퓨터(청소년, 어린이의 자녀들의 컴퓨터 중독)

가정세대는 컴퓨터를 골치 아프게 생각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하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컴퓨터에 대한 부담이 없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도 신발과 같은 것의 1순위는 컴퓨터를 신장할 정도로 컴퓨터를 좋아한다.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도 이것저것 만지작거려서 사용법을 익혀 활용하고 있다.

컴퓨터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근한 친구이자, 재미있는 오락기이자, 오디오이자, 책상 위에 TV이자, 말 잘 듣는 충실한 부하로 자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주로 게임·채팅·정보검색 등에 사용하고 공부에 활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다루면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무엇일까? 그것은 컴퓨터에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가정세대가 게임, 넷팅을 빙여나기 위해 겪는 시행착오의 시간을 청소년들은 즐겁게 뛰어들어 정보화 시대의 일원으로 쉽게 합류하는 것이다.

수 컴퓨터 중독증에 대한 논란

정신과에서는 중독(addiction)이라 하면 주로 약물중독을 의미한다. 중독증은 내성과 금단현상을 동반한다. 그런데 이런 마약과 같은 의존성 약물을 이외에도 중독조절장애에 의해서도 중독증이 나타난다. 정상인 사회활동을 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동기 유발과정이야 행동양식을 보이는 데 중독현상을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특정한 중독대상에만 매달리게 된다.

(다음호에는 게임중독의 원인을 분석해 본다)

표적인 중독증이 범적인 도박이다. 이러한 특징행동에 의한 중독, 김작 등 넓은 의미의 중독에는 '강박관념장애'의 하나로 파악할 것을 주장했다. 컴퓨터 보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컴퓨터 중독증도 중독조절장애에 의한 강박관념장애의 일종이다. 청소년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컴퓨터 중독증은 게임중독, 통신 중독, 음란물 중독이다.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 중독증은 다른 중독증과 큰 차이가 있다.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다양성이 소실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네트워크 게임, 채팅, E-mail 작성, 동호회 활동 등이 보이지 않는 타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현실 공간에서의 활동의 자아가 의외로 계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 컴퓨터 사용은 늘게 되고 그것이 정상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은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의해 인터넷 중독(통신중독)은 중독이라기보다는 사회현상의 하나이고 이를 중독증으로 분류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에 대한 사회현상의 비현실성에 대두되었다. 피크버그 대학 심리학자 Kimberly Young 등은 인터넷 중독(통신중독)이 불분명하고 정신장애 등의 금단현상을 동반하므로 중독증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의학계의 논란에 관계없이 게임·통신·음란물에 집착하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현상을 사회에서는 중독증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통신중독)의 판정 기준을 '하루 8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으로 하는 등 현재는 PC중독에 대한 판정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

청소년들의 컴퓨터 중독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02.10.8. 저녁 SBS 뉴스에서 성인이 PC방에서 80시간 이상을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죽었다는 방송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나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중독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와 해결방안이 나와 있다. (권순주, 1999)

(다음호에는 게임중독의 원인을 분석해 본다)

비전2020운동을 실현하는

한국기독교교단연합회 강원지회

한국교회 운동을 실현!
비전2020운동을 실현하는 군교회에 있습니다.
비전2020운동이란
군교회에서 진주에게, 일반교회와 연합교회 연결,
사단의 양육을 통해 2020년에
전국 교인의 75%를 복음화 하자는 운동입니다.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교회 후원 1주 50,000원 이상
★기부 후원 1주 10,000원 이상
★기부 후원 1주 5,000원 이상
(현금회) 후원 202-232-6346
비전 2020 강원지회 후원부

춘천시 낙동동 46-5 (춘천제일교회 내) TEL:033)241-4361
H.P.:019-807-9549 춘추 박대원 목사(평화교회교회 담임)

씩는 양식과 영생 양식 (요6:22~40) |



유영자 목사
(일신영일교회 담임)

◎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를 찾아 나
선 이유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건을 상기시키며 예수님 자신은 육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적 배고픔만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

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을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야로 오해하여 억지로 잡아 그들의 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영생 양식'인 것을 모르고 오직 육신의 소복만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동기는 불결 만능주의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정확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1. 오병이어 사건 이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 하셨습니까?

1) 요 6: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을 것과 배부를 까닭이로다

2) 요 6: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 영생 양식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물질적인 축복과 유익으로만 오해 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우선 순위와 삶의 우선 순위가 바뀐 육적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버린 것과 같이 버림을 받는 결국 이 됩니다.

◎ 썩은 양식

'썩은'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아폴루'라는 '패괴시키다' '멸망시키다' '멸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보다 더 인간의 성과와 실체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물질의 소유 정도에 있는 줄로 알고 사는 자들의 결국을 말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양식의 종류와 형식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1) 요 6: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다음호에 계속 전해 됩니다)

